

한·일 대학생의 ‘젊은이어’에 대한 인식*

－ 탄뎀(Tandem)학습 수강자의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

나 유 정**

本稿は、「日本語-韓国語タンデム学習」という授業に参加した韓国と日本の大学生の「若者言葉」に対する認識についてアンケートと学習日誌を通し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まず、若者言葉に対するイメージは日韓ともに「省略された言葉、流行語、SNSでよく使う」というイメージが強く、また「簡単で便利だ、面白い、共感して親密になる」と感じている一方で「意味がわかりにくい」という否定的なイメージも持っていた。そして目標言語の若者言葉をもっと学びたいと思っている学生が多く、若者言葉に対する関心度はとても高かった。

また、学習後の感想として韓国人学生の場合は、「今、流行っている言葉と文化がわかった、同世代の友だちともっと親しくなる切っ掛けになると思う、実際使われる言葉を学べて実用的だった」などがあった。そして日本人学生の場合は、「韓国の若者言葉は略語が多い、言葉遊びを楽しんだり円滑にリズミカル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たりできる若者言葉の新しい面が見られた」などがあった。このような若者言葉の実際の使用者である学習者の声から、若者言葉学習の有効性があったと言えよう。考察の結果はタンデム学習だけではなく会話や文化関連の授業におけるテーマの一つとして取り入れるなど、これからの日本語教育と韓国語教育の場で応用でき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若者言葉、流行語、新造語、タンデム学習、アンケート調査
(젊은이어, 유행어, 신조어, 탄뎀학습, 설문조사)

1. 서론

일본어의 ‘야바이’, ‘マジ?’, 한국어의 ‘꼰대’와 같은 이른바 ‘若者言葉’¹⁾라고 불렀던 말들이 이제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들을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대학 일본어융합학부 조교수, yjna@bufs.ac.kr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중고생이나 넓게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생겨나서 사용되다가 소멸, 또는 드물게 오랫동안 남아서 일반화되기도 하는 젊은이어는 한 때의 유행어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의 다양성과 사회상, 언어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사회 언어학적인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필자는 학교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젊은이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유학생이 1:1로 짝을 이루어 회화를 위주로 수업하는 ‘일본어-한국어 탄뎀학습’ 과목을 담당하게 되면서 수강생들의 회화 주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젊은이어에 대해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자신의 목표언어를 파트너에게 배우고, 자신의 모어를 파트너에게 가르쳐주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탄뎀학습은 젊은이어를 연구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판단되었다.

일본인 유학생들의 경우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학교수업을 받고 있기에 젊은이어를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좀 더 많지만,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경우는 주로 드라마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젊은이어를 접하게 된다. 한국인 학생에게 탄뎀수업은 직접 또래의 일본인 친구와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학생들이 젊은이어를 서로 가르치고 배워서 실제 접촉 장면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서로 공감하고 더욱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주로 젊은이어의 양상, 사용례, 조어법 등을 다루고 있는데,²⁾ 실제적인 사용자인 요즘 대학생들의 젊은이어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고찰은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젊은이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탄뎀학습에서는 어떤 어휘를 파트너에게 가르치고 또 배웠는지, 그리고 학습 후의 감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고찰 결과

1) 언어학에서 위상어(位相語) 중에서 연령에 따라 ‘유아어’, ‘노인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若者言葉’에 대응하는 한국어로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특유의 말이라는 뜻에서 짧게 ‘젊은이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신희영(2001), 고수경(2011), 김유영(2015), 최주리(2019) 등을 들 수 있다.

는 어휘와 문화 관련 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본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먼저 ‘若者言葉’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米川明彦의 정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 정의를 채용하고 있다. 米川明彦(1998;15)에서는 ‘중학생에서 30세 전후의 남녀가 친구나 소속집단 사이에서 회화촉진, 연대, 이미지전달, 은폐, 정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규범에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유희의 특징을 가진 특유의 말이나 표현’³⁾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若者言葉’에 대응하는 한국어로서 ‘젊은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⁴⁾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어휘와 문화와 관련된 교육면에서의 젊은이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어떤 것이며 주로 어떤 연구내용인지에 대해 한국의 학회에서 발표된 몇몇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경향이 강한 젊은이어의 특징상 연구대상 어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희영(2001), 고수경(2011), 노황희(2019)에서는 매년 발행되는 『現代用語の基礎知識』에 수록된 若者言葉を 대상으로 고찰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신희영(2001)에서는 110어휘를 선택하여 일본현지 거주 젊은이를 대상으로 젊은이어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다양한 강조어나 과장적인 표현, 애매한 표현의 사용이 많다는 젊은이어의 특징을

3) 米川明彦(1998;15) 「中学生から三十歳前後の男女が仲間内で会話促・娛樂・連帶・イメージ伝達・隠蔽・淨化などのために使う、規範からの自由と遊びを特徴に持つ特有の語や言い回し」

4) 본고에서의 ‘젊은이어’의 범위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젊은이어’가 중심이 됨을 밝혀둔다.

서술하고 있다. 고수경(2011)에서는 젊은이어의 어종(語種)별 조어(造語)의 특징은 순수일본어와 외래어가 다수인 점, 형태적인 조어면에서는 순수일본어와 한어, 그리고 외래어를 조합한 혼종어 사용이 많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소장(消長)관계 및 패션, 음식, 인간관계, 정신상태, 등 9개의 분야별 특징도 함께 고찰하고 있다. 노황희(2019)에서는 2007년과 2017년에 수록된 어휘의 양상 추이를 비교 분석하여 분야별로 10년 동안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어휘들이⁵⁾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젊은이어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최주리(2011)의 경우는 『新明解国語辞典』에 실려 있는 약어와 『現代用語の基礎知識』 2000~2012년판에 실려 있는 원어(原語)가 생략된 용례를 중심으로 국어사전과 젊은이말의 약어를 비교 고찰한 연구이다. 그리고 김유영(2015)에서는 『現代用語の基礎知識』 외에 KOTONOA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와 인터넷 블로그, 웹페이지 등의 다수의 텍스트데이터에 출현하는 젊은이어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젊은이어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컨텍스트’와 그것이 구현되는 형식인 ‘어구성’이 ‘매체’의 영향을 받아 ‘불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조어법을 어구성에 의한 것과 컨텍스트에 의한 조어법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조어법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⁶⁾

한편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일본어의 ‘若者言葉’의 개념에 딱 맞는 용어⁷⁾는 없지만, 유행어의 개념을 포함한 신조어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신조어 관련 선행연구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젊은이어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나

5) 10년 동안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어휘 예는 다음과 같다. 기본과 말버릇 관련어로 ‘~的な、~とか、っぽいな、きもい、やばい、むずい、マジ～、ぶっちゃけ、とりま’, 행동 관련어로 ‘詰んだ、速攻で、KY、ドタキャン’, 인간관찰 관련어로 ‘キャラ、イケメン’ 등이다.

6) 어구성에 의한 조어법은 다시 음의전환, 표기의 전환, 축약, 확장, 재배열, 추가, 파생, 단계·반복, 전환, 의성어·의태어의 10가지로, 컨텍스트에 의한 조어법은 언어유희, 전용, 태도, 젊은이들의 문화라는 4개의 카테고리 분류하고 있다.

7) 예를 들면 김유영(2019)에서는 ‘젊은이들의 유행어’로 번역하고 있다.

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보현(2020)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신어(新語)자료집과 웹기반 말뭉치, 구글검색, 뉴스기사 등에서 추출한 신조어를 중·고급 이상의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어휘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 단어형성법을 익히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향상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김덕신(2021)에서는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학습자에게 교재 밖에 있는 신조어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과 함께 매체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신세대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수법으로서 플립러닝 교수법을 이용한 신조어 수업방안을 제시하였다. 학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배우기 원하는 신조어를 조사하여 수업에서 문제해결학습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습자들 스스로 신조어 속에 담긴 문화를 찾아내고 어휘력 향상에도 효과도 있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상으로 일본어의 젊은이어와 한국어의 신조어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본어의 경우는 젊은이어의 양상과 특징, 사용례, 조어법을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⁸⁾ 한국어에서는 최근 들어 신조어를 한국어 어휘교육에 도입하는 연구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젊은이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인 학습자들이 젊은이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수업에서 서로 어떤 말을 배우고 가르쳤는지, 또 수업 후의 젊은이어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고찰함으로써 젊은이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젊은이어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찰 결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본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할 것이다.

8) 젊은이어의 사용양상, 사용례, 조어법 이외에 北沢昭彦(2007)의 「ぼかし言葉」에 초점을 맞춘 연구, 김용균·서경원(2014)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瀬楽享(2019)의 일반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3. 탄뎀(Tandem)수업과 설문의 개요

3.1 탄뎀수업 개요

먼저 ‘Tandem’이란 용어는 독일어로 2인용자전거를 뜻하는데 탄뎀수업은 ‘탄뎀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이다. 탄뎀학습법이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명의 학습자가 조를 형성하여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 자신의 모어를 가르치는 외국어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를 이룬 두 명의 학습자는 서로 상대방의 모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이면서 또한 상대방의 학습을 도우는 지원자이기도 한 것이다. B대학 일본어학부에서는 이 탄뎀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으로서 ‘일본어-한국어 탄뎀학습’이라는 과목을 매학기 개설하고 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언어 능력의 향상, 이문화이해의 심화, 파트너와의 교류를 통한 친구 만들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향상이다. 기존의 수업과 달리 이 수업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상호학습과 자율학습 원칙하에 본인들이 학습목표를 정하고 학습테마 선정, 학습자료 준비, 학습방법과 같은 학습계획도 스스로 결정한다. 따라서 수강생들은 매주 본인들이 정한 테마에 따라 준비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면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각각 1시간씩 회화를 하고 학습 후에는 학습일지를 적고 파트너와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는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매주 학습할 테마를 본인들이 정하게 되는데 2021년 1학기에는 12주차에 젊은이어를 공통테마로 정하여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3.2 설문 대상 및 설문 내용

본고에서 수업의 실례로 제시하는 2021년 1학기 탄뎀수업 수강자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각각 6명이다. 설문대상자의 프로필 내용은 학년, 성별, 어학수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 대상 학생

한국인학 습자	학 년 (성별)	일본어수준 (JLPT 기준)	일본인 학습자	학년 (성별)	한국어수준 (TOPIC 기준)
K-1	2(여)	N2	J-1	2(여)	2급
K-2	2(남)	N3	J-2	2(여)	3급
K-3	3(남)	N1	J-3	3(여)	4급
K-4	3(여)	N3	J-4	3(여)	3급
K-5	4(여)	N2	J-5	3(여)	5급
K-6	4(여)	N1	J-6	3(여)	3급

한국인학생의 경우는 학년이 다양하고 일본어 수준이 JLPT기준 중·상급 정도이며 일본유학 경험은 모두 없었다. 일본인 학생의 경우는 4명이 자매대학 교환유학생, 2명이 일본 전문대졸업 후 학부생으로 편입한 학생이었고 한국어수준은 TOPIC으로 보았을 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다양하였다.

설문은 위 학생들에게 11주차에 실시하였으며 주요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평소에 본인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젊은이어에 대한 설문
- (2) 목표언어의 젊은이어에 대한 설문
- (3) 젊은이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

위의 설문결과와 함께 학습 후에 제출하는 학습일지를 통해 학습 전과 학습후의 젊은이어에 대한 이미지 변화와 감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평소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젊은이어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본인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젊은이어와 그 사용대상, 상황, 배운 곳, 사용 목적, 사용 시 주의하고 있는 점, 사용하면서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젊은이어를 적어보도록 하였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앞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이 적은 순서 그대로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내가 자주 사용하는 젊은이어(한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인학생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
K-1	띠용
K-2	노잼, 마상, 까놀, 레게노, ㅇ스
K-3	ㄹㅇ, ㅋㅋ, 개꿀, 라떼는말이야, 야민정음, ~하실? ~허설? 식빵(고양이)
K-4	존맛탱, ㅇ스, ㄹㅇ, 핑프, 할많하않, 꾸안꾸, 길끼빠빠, 자만추, 팬아저, 소확행, 레알, 머선129, 잼민이, 팩폭, 혼코노, 마상, 얼죽아, 취존, 현타
K-5	헐, ㅇ스, 찐다, 코노(동노), 혼밥, 아아, 극혐, 노잼, 맴찐이
K-6	레게노, 머선129, whyrano, ㅋㅋ, 스ㄱ스ㅇ, 루팡팡, 킹받네, 얼죽아, 무야호, 자만추

상기 표에서 보면 학습자에 따라 본인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어휘 양에 현저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언급된 어휘로서는 ‘노잼(재미 없음)’, ‘마상(마음의 상처)’, ‘얼죽아(얼어죽어도 아메리카노)’,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친구), ‘머선129(‘무슨 일이야?’를 경상도사투리로 말한 것)’와 초성만으로 표현한 ‘ㅇㅅ(인정)’, ‘ㄹㅇ(레알)’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어휘는 4.2절의 수업 시간에 일본인 학생에게 가르쳐 준 어휘와 대부분 겹치고 있으므로 특징에 관한 것은 4.2절에서 보기로 한다.

〈표 3〉 자주 사용하는 젊은이어(일본인 학생의 경우)

일본인	普段、よく使っている若者言葉
J-1	ぴえん、わんちゃん、えもい
J-2	つんだ、~しか勝たん、たびる、くさ、KP、ワンチャン、わいた、じわる、やばい、エモい、とうとい
J-3	それな、~しか勝たん
J-4	やばい、つんだ、ぴえん、すこ、キュンです、ま?
J-5	ぴえん、わろた、ワンチャン、3150、ちな、~しか勝たん、とりま、それな、ディスる、うざい
J-6	それな、とりま

일본인 학습자도 한국인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많이 보였다. 중복적으로 언급된 것이 ‘ぴえん’, ‘つんだ’, ‘それな’, ‘~しか勝たん’, ‘ワンチャン’, ‘とりま’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두만을 로마자로 나타낸 KP와 숫자로 나타낸 3150이 특징적이었다.⁹⁾

9)ぴえん: 悲しい時に小さく泣く様子のオノマトペを表現した言葉(残念な出来事があったときに使う)、つ(詰)んだ: 物事に行き詰まり、手の打ちようがない状況を表す。(もうだめだ、終わった、絶望的だのニュアンスに近い)、それな: それだよ、そう思う、の意、~しか勝たん: ~が最高(~に勝てるものはない)、ワンチャン: One Chance、とりま: とりあえず、まあの意、KP: 乾杯、3150: 最高の意

〈표 4〉 젊은이어 사용대상

사용대상	동기	선배	후배	가족	손윗사람
한국인	6	3	5	2	1(점장님)
일본인	3	0	4	4	0
사용대상	친 구				
	같은나이	연상	연하		
한국인	6	3	6		
일본인	6	1	5		

사용대상을 보면 한국인학생도 일본인학생도 모두 동기나 친구에게 사용하고 있었고 친구 중에서도 같은 나이나 연하에게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중에서 선배에게 사용한다는 사람이 3명인데 비해서 일본인의 경우는 없었다. 또한 가족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일본인 학생 쪽이 더 많았다. 손윗사람에게 사용한다고 답한 학생은 한국인이 1명이었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친한 경우로 추측된다. 젊은이어는 아무래도 또래끼리 또는 아랫사람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예상대로의 결과였다.

다음으로 언제(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젊은이어를 배우거나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젊은이어를 사용하는 상황

	회화	카톡·라인 메시지	SNS
한국인	5	6	5
일본인	6	6	5

〈표 6〉 젊은이어를 배운 곳

배운	친구	TV 프로그램	인터넷 (SNS, Youtube, web)
한국인	6	2	6(SNS:6, You:5)
일본인	5	0	5(SNS:5, You:3,web:1)

젊은이어 사용 상황과 배운 곳은 중복 응답이 가능한 항목이었는데, 양국학생 모두 회화를 할 때, 카톡이나 라인, SNS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젊은이어는 회화뿐만 아니라 문자언어로도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운 경로는 대부분 친구나 인터넷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주로 또래끼리 사용되는 젊은이어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젊은이어 사용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이 있었고 중요한 점이라 생각되어 학생들이 기술한 것을 그대로 옮겨 표로 만들어보았다.

〈표 7〉 젊은이어의 효과(사용목적, 장점)

한국인학생	젊은이어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K-1	대화 시 풍부한 표현을 사용해 전달할 수 있다
K-2	편리하다, 강조효과, 재밌다
K-3	친밀도를 나타내거나 웃긴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된다
K-4	재미있고 간단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K-5	편리하다, 공감을 나타낸다
K-6	긴 단어를 짧게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일본인학생	若者言葉の効果 (使用目的、長所)
J-1	言いたいことが早く伝えられる
J-2	いろんな表現ができる
J-3	単略的に話すことができる、便利、共感、空気を読む
J-4	共感して親密になる、省エネ
J-5	自分は流行に乗ってるよという感じが出る、自分はまだ若いという自己主張
J-6	便利

학생들이 생각하는 젊은이어의 효과에 대해서는 편리성, 풍부한 표현가능, 공감, 친밀도가 공통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용 시 주의하고 있는 점(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표 8〉 주의하고 있는 점

	젊은이어 사용에서 주의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인 학생	처음 보거나 불편한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욕이 되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심하게 줄인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인 학생	目上の人には使わない。親しくない人には使わない。格式的場面。誤解を受けそうな言葉やシチュエーションに気を付ける。

양국 학생 모두 격식 차린 자리에서, 그리고 윗사람에게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 점이 공통적이었는데, 대상과 장소를 잘 가려서 사용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 지의 여부

	사용하면서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한국인 학생	없다. 크게 느낀 적은 없으나 어린아이(초등학생)들이 쓰는 표현은 이해 못할 때가 있다. 고등학생인 동생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말이 이제는 잘 쓰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세대 차이를 느낌.
일본인 학생	ない。親と会話した時、通じない。妹が私が知らない若者言葉を使ってきて分からなかった。都会にいる子の話にわからない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한국인 1명, 일본인 2명이었다. 느낀 적이 있다고 한 경우를 보면, 부모와 통하지 않을 때나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몰랐을 때,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말이 잘 안 쓰이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는 생성소멸의 주기가 짧은 젊은이어가 많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에 사는 사람의 말을 모를 때라고 한 일본인학생도 있어 젊은이어는 지역차도 있음을 알 수 있다.

4.2 학습을 통해 배운 젊은이어

먼저, 한국인 학생이 수업에서 일본인 학생에게 배운 어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한국인 학생이 수업에서 배운 어휘¹⁰⁾

한국인 (파트너)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에게서 배운 것
K-1 (J-6)	やりらふいー、パリピ、あげみ・あげみざわ、飛ぶぞ、よき・よきよき、3150、えぐい、エモい、tkmk、かまちょ、じわる
K-2 (J-2)	つんだ、KP、あたおか、レベチ、ペピタッピ、ま?、とりま、マジレス、無理ゲー、ワンチャン、よき、草不可避、草生える、草生えた、草、神ってる、ディする、イケボ、じわる、ガン? え、ガンダ、秒で、エモい、湧いた、尊い、～しか勝たん、すこ
K-4 (J-4)	ディする、やりらふいー、陽キャラ、ワンチャン、ぴえん、レベチ、ま?、よき、草、イケボ、とりま
K-5 (J-1)	ぴえん、ワンチャン、エモい、～しか勝たん、～してもろて、飛ぶぞ
K-6 (J-5)	ぴえん、とりま、ディする、それな/それ、じわる、ワンチャン

10) K-3학생은 결석으로 인해 참가하지 못하고 대리파트너를 섭외하였으나 그 학생은 수강생이 아니므로 학습일지 제출을 받지 않음.

한국인 학생이 배운 어휘 중에서 중복적으로 언급된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ワンチャン’이 5회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エモい’, ‘ディする’, ‘とりま’, ‘ぴえん’, ‘よき’가 3회, ‘～しか勝たん’, ‘飛ぶぞ’, ‘レベチ’, ‘ま?’, ‘やりらふいー’, ‘イケボ’, ‘草’, ‘じわる’¹¹⁾가 2회, 그 외는 모두 1회 등장하였다.

다음으로 출현 어휘들의 특징을 보면 ‘ワンチャン, パリピ’와 같은 영어 원어를 줄인 것, ‘レベチ, イケボ’와 같은 혼종어를 줄인 것, ‘ま?, とりま, あたおか(頭がおかしい(人)の意味)’처럼 일본어를 줄인 것, ‘エモい, ディする’처럼 영어를 일본어 형용사나 동사로 만든 것, ‘PK(乾杯), tkmk(ときめく)’와 같이 일본어의 어두만 로마자로 따온 것 등 매우 다양하였다.

〈표 11〉 일본인 학생이 수업에서 배운 어휘¹²⁾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에게서 배운 것
J-1 (K-5)	헐, ㅇ스, 찼다, 코노(동노), 아아, 뜨아, 극혐, 노잌, 맵찔이
J-2 (K-2)	위라벨, 킹반네, 킹리직 갓심, 레게노, 머선129, 억텐, 스블재, 당모치, 만반잘부, 불소, H위얼V, 무야호, 파파괴, 파파미, 연서복 아더메치유, 2000원 비싸짐, 루뽕뽕, K-○○, 갈비, スハス〇, 나심비, 군싸, 임포, 갑통알, 완내스, 알잘딱깔센, 강직인, 오저치고, 점메추해, 잼민이, 너절
J-3 (K-3)	만반잘부, 연서복, 당모치, 머선129, 무야호, 갑뿐사, 맥세관, 레게노

11) エモい: 哀愁のある/切なげな/エモーショナルな/感動する/いい感じの、ディする: 批判する、悪く言う、よき: 「良い」を古文風に言い回した表現、飛ぶぞ: (昇天するほど)美味しいという意味、レベチ: レベルが違う、ま?: 「本気(まじ)?」の略語、やりらふいー: パリピ(パーリピーポー)な人、イケボ: イケメンボイス(かっこいい声のこと)、草: 笑(w)、じわる: 時間が経ってからじわじわ笑えるようなことを指す。

12) J-3학생은 원래의 파트너가 결석하여 임시 대리파트너인 한국인학생과 학습하면서 배운 어휘임.

J-4 (K-4)	ㅇ스,ㅇㅇ,ㄹㅇ,ㅇㄷ, 찐이네, 존맛탱, 핑프, 할많할얌, 길끼 빠빠, 자만추, 취존, 팩폭, 마상, 갑분싸, 안물안궁, TMI
J-5 (K-6)	재질, 군썸, 머션129, whyrano, 쏘썸따리, 임포, 억텐, 찐 텐, 스불재, 주불, 레게노, 완내소, 손만수, 손민수탐, 인만 추, 쫄잘싸, 싸가능, 최최차차, 핑프, 혈중마라농도, 700, 루뽕뽕, 갑통알, 킹반네
J-6 (K-1)	멍작, 멍언, 땡땡이, ~각이다, 쌍수, 띠용, 켄춘. 차철, ㄴ ㄴ, ㄴㅇㄱ, ㄱㅇㅇ, 머션129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에게 배운 젊은이어를 보면 대부분 한국인 학생 본인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언급되고 있지만 학습준비를 하면서 6명 모두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말 이외에 더 많은 것을 파트너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K-2학생과 K-6학생의 경우를 보면, 학습 전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보다 많은 어휘를 준비해 와서 파트너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일본어에 비하면 한국어의 경우는 줄임말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인데 너무 많이 줄여서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어휘도 많다.¹³⁾ 그리고 한글 초성만으로 표기한 것도 많은 편인데 음소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인 한국어의 특징을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착시현상으로 인해 다르게 보이는 대로 발음하는 것도 있다.¹⁴⁾ 또한 ‘머션 129(무슨 일이야?), whyrano(와이라노)’와 같은 사투리 관련어도 있어 한국어 젊은이어도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이 학습 전에 알고 있었던 젊은이어와 어디에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13) 예를 들면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갑통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아해야겠다, 강직인: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 당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만만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연서복: 연애에 서툰 복학생, 알작딱갈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등을 들 수 있다.

14) 예를 들면 땡땡이: 멍멍이(‘땡’의 ‘ㄴ’과 ‘ㅍ’가 ‘ㅁ’과 ‘ㅂ’로 보여 생긴 신조어), 멍곡: 멍곡(‘땡’의 ‘ㄴ’과 ‘ㅂ’가 ‘ㅁ’과 ‘ㅂ’로 보임), H워얼V: 사랑해(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 ‘사랑해’로 보임) 등이다.

〈표 12〉 학습 전 알고 있었던 젊은이어

한국인	알고 있는 일본어의 젊은이어가 있습니까?
K-1	~しか勝たん、ぴえん
K-2	とりま、~しか勝たん、~まる、~水産、話んだ?、チー牛
K-3	なし
K-4	チョーウケル、あざす、じらいじょし、ぴえん、チー牛
K-5	くそ~、タボる
K-6	なし
일본인	知っている韓国語の若者言葉はありますか。
J-1	노잼
J-2	마상, 무야호, 머션129
J-3	없음
J-4	친추, 맞팔
J-5	갑분싸, 사바사, 케바케, 얼죽아, 아아, 따아, 복세편살 ,스 세권, 라떼는말이야, 극혐, 위라벨, 할많하않, 자만추
J-6	아싸, 인싸, 무야호, 아아

〈표 13〉 어디에서 알게 되었는가?

※ 복수응답

	일본인/한국인 친구	인터넷	선생님, 수업
한국인	3	2	0
일본인	5	2	2

한국인 학생들이 학습 전에 알고 있었던 젊은이어는 개인차를 보였는데 아는 말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명(K-3, K-6)인데 둘 다 N1 수준의 학생이었고, 5~6개를 알고 있는 학생(K-2, K-4)은 N3 수준의 학생이었다. 일본어수준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호기심과 취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알게 된 경로는 일본인

친구와 인터넷을 통해서였다. 또한 일본인 학생의 경우에도 알고 있는 어휘 수에 개인차가 있었는데 없다고 답한 학생과 1개를 적은 학생이 각각 1명, 1~4개까지가 3명이었다. 13개를 적은 학생(J-5)이 1명 있었는데 이 학생의 경우는 일본에서 한국인 친구와 한국어 수업 시간에 한국인 선생님께 배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모두 목표언어의 젊은이어를 그리 많이 알고 있는 편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젊은이어에 대한 관심도, 즉 젊은이어에 대해 더 알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젊은이어에 대한 관심도

	매우 알고 싶다	조금 알고 싶다	어느 쪽도 아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전혀 알고 싶지 않다
한국인	5	0	1	0	0
일본인	3	1	2	0	0

한일 학생들 모두 ‘매우 알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젊은이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유

관심도	더 알고 싶은 이유의 예
매우 알고 싶다	• 때로는 웃음벨이 될 수 있다. •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를 알고 싶어서. • 일본친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를 사용하면서 더 친해지고 싶다. • 친구끼리 사용 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이야기 하기 편하다. •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쓰기 위해 젊은이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とても知りたい /まあまあ知り	• 使いたいから。 • 若者でありたい。

たい	・自分が知っている若者言葉が古いものが多いので新しい若者言葉を知りたい。 ・流行にのりたいから。 ・知っていて損はないかなあと思う。
어느 쪽도 아니다	그저 어느 쪽도 크게 관심이 없다
どちらでもない	・知ったとしても実際に使えないと思うから。 ・知識としては知りたいが、実際に使おうとは思わないため。

한국인 학생의 경우는 젊은이어를 알고 사용함으로써 일본인 친구와 동질감을 느끼면서 더 친해질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일본어 사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문화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술이 많았다. 일본인 학생들의 경우, 관심도가 높은 학생은 사용하고 싶다, 유행을 따르고 싶다, 알아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라고 답한 2명의 경우는, 아직 한국어를 잘 하는 편이 아니므로 지식으로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3 학습 전과 학습 후의 젊은이어에 대한 이미지

먼저 젊은이어를 테마로 학습하기 전에 젊은이어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대해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자유로운 서술일 때 젊은이어에 대한 평소의 이미지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할 것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서술한 말 그대로를 옮겨보았다.

〈표 16〉 내가 생각하는 젊은이어 이미지

한국인	젊은이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K-1	줄임말, 유행어, 신조어 등 쉽게 쓰는 표현, 과거 잘 쓰지 않았던 인터넷용어, 친구끼리 사용, 한국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말장난
K-2	말을 생략하거나 초성만을 사용하는 등 짧고 간단하게 함
K-3	문자의 자유로운 변형, 말보다 글로 더 쓰임
K-1	10대나 20대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긴말을 짧게 줄인 말이 많다, 알아듣기 힘든 말들도 많다
K-1	편하게 이야기하는 언어, 줄임말, 유행언어
K-1	줄여서 말하여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	若者言葉というと、どん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か。
J-1	会話が弾む
J-2	若い子達が使う(高校生ぐらい)、ちょっと難しい、SNSでよく使われる
J-3	流行語
J-4	若者が使っていて省略された言葉
J-5	若者(10代、20代前半)が使う、流行にのってる感じ
J-6	バカっぽい言葉、意味が分からない言葉、薬

위의 서술에서 공통적인 것을 정리해보면 줄임말, 생략된 것, 간단한 것, 문자로 사용, 유행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편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바보스러운 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다.

이러한 학습 전의 이미지에 대한 서술과 관련시켜, 학습 후에 느낀 이미지 변화나 새로 알게 된 점,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¹⁵⁾

15) 매주 학습한 내용을 쓰는 학습일지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목표언어로 작성하는 학습일지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학습을 되돌아보는 학습일지로 모어로

<표 17> 학습 후의 감상

	이미지에 관련
한국인	· 주로 귀여운 표현이 많아 귀여운 이미지가 생겼다. · 학습 전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편하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거칠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파트너가 이 말은 예쁜 말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등 젊은이어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느낄 수 있었다. · 학습 전에는 젊은이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학습 후에는 젊은이어를 쓰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	· 韓国の若者言葉は省略したものや、かわいいものが多いと感じた。 · 韓国の若者言葉は省略したものが多いからか、使うと会話が楽になる気がした。
	새로 알게 된 것
한국인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줄임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예:ときめく→tkmk) · 젊은이어=유행어라고 생각한다. 찾아 본 단어들 중 유행어도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젊은 층 밖에 모르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일본인	· 日本語の若者言葉は新語が多いのに対し韓国語の若者言葉は略語が多いことを学んだ。 · 日本の若者言葉と言われ、自分はあまり使っていないと思っていたが、調べてみると自分もたくさんつかっているものがあると知った。
	기타 감상
한국인	· 파트너가 소개한 젊은이어 모두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실제 일본인이 사용하는 젊은이어를 배우게 되어 실용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너무 많은 줄임말이나 유행어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에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작성하게 된다. 본인의 학습에서 잘된 점, 반성할 점이나 개선점, 감상 등을 적게 하여 본인이 스스로 피드백을 하여 본인의 학습 개선에 활용시키는 취지에서이다. <표 17>은 학습일지 중에서 되돌아보기에서 학생들이 모어로 서술한 내용이다.

일본인	・今、流行している若者言葉を学ぶ機会がなかったので、今回の授業で学ぶことが出来て良かったです。 ・韓国人の友だちは私が外国人なので、若者言葉や方言を使わないので授業で学べてよかった。 ・今回のテーマを通して、ことは遊びを楽しんだり円滑にリズミカル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たりできるという若者言葉の新しい面を見れた。 ・学習前は、どんな若者言葉があるのか少し期待していましたが、学習後は、正直、若者言葉を使いこなすのは難しいなという思いです。
-----	--

양국 학생들의 학습 후의 감상을 보면 젊은이어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있었던 학생도 있었으며, 젊은이어에 대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의미 있는 학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한국인학생과 일본인유학생이 1:1로 조를 이루어 서로의 모어와 목표언어를 상호 가르치고 배우는 ‘일본어-한국어 탄뎀학습’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젊은이어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먼저, 젊은이어에 대한 이미지는 한일 학생 모두 생략된 말, 유행어, SNS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또한, 간단하고 편리하다, 재미있다, 공감과 함께 친밀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느끼는 반면, 알아듣기 힘든 말이 많다, 바보스러운 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모어에서의 젊은이어 어휘는 양적으로 개인차가 많았다. 그러나 목표언어의 젊은이어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았는데 젊은이어가 또래와의 연대감과 공감, 젊은이문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습 후의 감상으로는 한국인 학생의 경우는, 또래 친구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사용되는 말을 배울 수 있어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말과 문화를 알 수 있었다, 귀여운 표현이 많아 귀여운 이미지가 생겼다 등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너무 많이 줄인 말을 사용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본인 학생의 경우는, 유행하고 있는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수업에서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언어 유희를 즐기거나 리드미컬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젊은 언어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한국의 젊은이어는 줄임말이 많아 사용하면 회화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학습 전에는 어떤 젊은이어가 있는지 기대했지만 학습 후 이러한 말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소감도 있었다.

탄뎀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이 서로의 젊은이어를 가르치고 배울 때 단순히 단어 자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생긴 배경과 함께 예시를 들거나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또 어떤 뉘앙스인지를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어휘력, 회화력 향상과 문화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탄뎀식 수업은 대면이 가장 좋지만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업이므로 공감과 연대감 형성이 가능한 젊은이어를 e-Tandem에서의 하나의 테마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젊은이어가 한 때의 유행어처럼 사용되다가 소멸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 교재의 주제로 삼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회상, 젊은 세대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져 있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젊은이어를 회화수업에 도입하거나 팀프로젝트, PBL 수업 등에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일본어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젊은이어의 실제 사용자인 학습자들의 젊은이어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고찰에 머물렀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언어적인 관점,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활용방법의 제시 등은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수경(2011) 「流行語における若者言葉の諸相について-『現代用語の基礎知識』を対象として-」『일본어교육연구』Vol. 30,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49-60.
- 김덕신(2021) 「한국어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이용한 신조어 수업 방안 연구」『어문연구』108집, 어문연구학회, pp.195-221.
- 김보현(2020) 「신조어를 활용한 한국어 단어 형성법 교육내용 연구」『어문론집』84집, 중앙어문학회, pp.363-389.
- 김용균·서경원(2014) 「若者言葉を通じて見た日本若者文化の特徴」『일본언어문화』27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183-210.
- 김유영(2015) 「現代日本語の若者言葉の構造と造語法による分類」『일어일문학연구』95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90-114.
- _____(2019) 「現代日本語と現代韓国語の『若者言葉』と『打ち言葉』」『일본학연구』57집, 단국대학교일본연구소, pp.183-204.
- 노황희(2019) 「若者ことば의 지속성에 관한 고찰-『現代用語の基礎知識』을 중심으로-」『일본학』Vol. 48,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167-187.
- 신희영(2001) 「若者ことばの使用実態に関する一考察-東京居住者を中心に-」『일어일문학연구』38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81-98.
- 최주리(2019) 「略語の対照-日本国語辞典と若者語を中心に-」『일어일문학연구』10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157-176.
- 北沢昭彦(2007) 「若者ことばにおける『ぼかし語』に関する一考察」『日本語学研究』18巻18号, 韓国日本語学会, pp.31-47.
- 瀬楽享(2019) 「日本語の若者言葉の理論的分析に向けて」『日本語文学』84輯, 日本語文学会, pp.99-116.
- 米川明彦(1998) 『若者語を科学する』 明治書院, pp.1-66.

〈Abstract〉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Youth language”

– Focusing on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by
Tandem Learning Attendance –

Na, Yoo-Jeong

Through questionnaires and study journals by the students,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s of ‘words used by young people’ by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Japanese-Korean Tandem Learning’ class.

First, the perception of ‘youth language’ had a strong image of abbreviated words, buzzwords, and frequently used words on social media. In addition, many students think that these words are convenient, funny, and bring empathetic and intimate feelings, but there are some students who think that these words had a negative image as well since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the words. And there are lots of feedbacks from the students after the learning. One of them is that they got to know the popular language and its culture. The other one is that it was practical to learn the words used in real situations, which makes it possible to have nice and smooth communication.

The responses from these learners, who are the actual users of ‘youth language’,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is learning. I think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future both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 Youth language, Buzzword, Newly-coined word, Tandem Class,
Questionnaire-based survey

투 고 일 : 2021년 10월 15일

심 사 일 : 2021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05일